

고용시장 봄은 언제...대기업 30%만 신입공채

잡코리아 설문...107개 기업 을 8465명 채용 전년비 8.8%↓
기계·철강·조선 절반 ‘뚝’...현대차·LG 이달말부터 순차 모집

다음주부터 주요 대기업의 공채 시즌이 시작되지만 채용시장은 찬바람만 뽀뽀 불고있다.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만이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계획을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시장의 ‘큰 손’인 삼성그룹은 아직 일정을 정하지 못해서 전체 채용 규모가 전보다 줄면서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4년째 대학 졸업 정규 신입직 채용계획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응답한 312개 기업 중 44.6%(139곳)는 상반기 신입공채 계획이 아예 없었다. 아직까지 채용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도 21.2%(66곳)나 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에서 상반기 신입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이 많았다(68.8%, 16곳 중 11곳). 다음으로는 자동차업(53.8%, 26곳 중 14곳), 식음료·외식업(45.8%, 24곳 중 11곳) 순이었다.

반면, 최근 구조조정 한파가 불고 있는 조선·중공업에서는 10개 기업 중 단 한 곳만이 신입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기계·철강업과 IT·정보통신업 등도 상반기 신입공채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의 비율(채용 않는다) 각각 57.1%이 높았다.

이에 따라 상반기 신입공채를 진행하는 107개 기업의 채용인원은 총 8465명으로 한 기업당 평균 79명 정도의 신규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상반기

신규 채용 규모 총 9286명보다 8.8%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수주 급감·수출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계·철강업(-48.9%, 313명→160명)과 조선·중공업(-46.7%, 30명→16명)은 전년동기 대비 채용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금융업(-31.6%, 431명→295명)과 건설업(-30.3%, 208명→145명)도 전년 동기 대비 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 및 수출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는 자동차업(-1.8%, 437명→429명)과 전기·전자업(-3.0%, 201→195명)의 상반기 신입공채 규모는 그나마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에 응한 기업 중 상반기 신입공채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업으로 총 4297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

(1530명), 석유·화학·에너지업(581명), 유통·물류업(500명), 식음료·외식업(417명), 금융업(295명)이 그 뒤를 이었다.

상반기 공채 시기는 3월 진행 기업이 27.1%로 가장 많았다. 2월과 4월에 신입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은 각각 20.6%, 14.0%였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이 오는 28일 가장 먼저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며 LG그룹도 다음달 2일부터 계열사별로 순차적으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SK그룹은 다음달 중순부터 대졸자 2100명을 포함해 경력, 인턴사원 등 총 8200명을 뽑겠다고 발표했다.

이재학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실장은 “주요 기업이 상반기 채용계획을 보수적으로 잡거나, 상시공채 등으로 신규인력 충원 방식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며 “취업 준비생들은 미리 입사지원 기업의 공채 일정과 채용 프로세스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02.93 (+18.54)	금리 (국고채 3년) 1.67% (0.00)	
↑ 코스닥 622.47 (+2.50)	↓ 환율 (USD) 1146.10원 (-1.40)	



한전, 장학금 수여 한국전력(사장 조원익)은 21일 한전 본사에서 전기공학 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대학교 및 8개 대학원의 학생 106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약 9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전 제공>

지역 우수 中企제품 TV광고 노출 기회 中企진흥공단,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창범)는 ‘중소기업 제품 간접광고(PPL)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비재 생산·판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에 제품 노출 기회를 제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KBS-완벽한 아내, 해피투게더3’, ‘MBC-황금주머니, 나혼자산다’, ‘SBS-언니는 살아있다, 백년손님’을 포함해 총 17개 프로그램이다.

사업 참여기업에는 ‘간접광고비용 최대 50% 지원’, ‘간접광고 콘텐츠 활용 마케팅 교육’,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사업’ 등 중진공의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이 연계 추진된다.

참여기업 선정은 제작사, 유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위원회는 선정기업이 제출한 제품 노출 희망 의견과 상품성, 수출유망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의견을 종합해 PPL 적합 프로그램과 노출 방식을 정하게 된다.

간접광고 참여 희망 기업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00-3030.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 온 ‘걸스데이’ 헤리 보혜양주 ‘일새주’ 모델 헤리가 21일 오후 광주시 동구 불로동 603스튜디오에서 일새주 포스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보혜양주 제공>

현대차도 전경련 탈퇴...4대그룹 모두 떠나

현대차그룹이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공식 탈퇴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탈퇴원을 제출한 현대차를 시작으로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카드, 현대제철 등 11개 계열사가 모두 오후에 전경련에 탈퇴 의사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한 LG를 시작으로 삼성, SK 등 4대 그룹 모두 전경련을 떠났다.

현대차그룹은 그간 공식 탈퇴를 하지는 않았으나 올해부터 회비 납부를 중단하

는 등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다가 사실상 전경련을 탈퇴한 상태였던 SK가 최근 의사를 공식 회합에 따라 현대차그룹도 전경련 활동에 정식으로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탈퇴원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4대 그룹은 2015년 기준으로 전경련 연간회비 492억원 가운데 77%가량인 378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매년 600여개 회원사로부터 연간회비를 걷어왔다.

주요 회원사가 줄줄이 탈퇴를 공식화함에 따라 외해 위기에 몰린 전경련의 붕괴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기업이 수백억원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져 해체 여론에 직면한 상태다.

지난 17일 이사회를 연 전경련은 오는 24일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후임 회장을 내세우지 못하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가계부채 1344조...1인당 2613만원

한국은행 발표...11.7% 늘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21일 가계부채를 나타내는 통계인 가계신용 잔액이 작년 말 1344조3000억원(잠정치)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공식적 통계로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보통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계 빚이 늘 수 있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141조2000억원)로 2006년(11.8%) 이후 사상 두번째로 높았다. 또 2015년(10.9%·117조8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소득은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가계부채를 통계정의 2017년 추계 인구(5144만6000명)로 나누면 1인당 평균 2613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올해 들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집담대출 등을 살펴볼 때 당분간 가계 빚 증가세는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은은 지난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올해에는 기약정 집담대출이나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될 개연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지만 불안감은 커졌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취약계층이 받을 타격이다. 작년 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국내 시중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가계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9%로 22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취약차주는 작년 9월 말 현재 146만명이고 이들이 받은 대출금은 약 78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또는 저소득(소득 하위 30%)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또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악재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저량효과로 인해 경제성장률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KGC
Korea Golf Coop
대한골프협동조합

회원가입 절차

-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 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동호회 육성/골프장나무 지원

회원혜택

- 화순CC, JNJ, 영광CC, 아크로, 화순엘리체
- 국내 최초 골프협동조합 탄생!!
- 보성CC, 디오션, 함평엘리체, 제주, 고창

레저 이용혜택!!

엘도라도리조트, 무주토비스콘도, 서해안변산, 서해안대천, 담양메타펜션, 제주골프텔, 화순, 속초, 제주, 충주 금호리조트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치평동 890-12) ☎(062)371-1800 · 010-6270-1879

특허방수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2중압박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관공제 옥상시공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 ↓ 겨울철 실내온도: 3~5℃ ↑

전기로 30~40% 난방비 절감

냉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후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시공단계

- Step 1 바탕정리
- Step 2 단열복합시트 시공
-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시공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패턴카탈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징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나 잔 랜디니와의 콜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용 합치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